

## 세월호 참사 다룬 ‘그날, 바다’ 빛고를 스크린에

내일 광주극장서 김지영·김어준 관객과 대화  
영화 ‘박하사탕’ 리마스터링 버전 오늘 개봉  
내달 2일 ‘패터슨’ 상영 후 나희덕 시인 토크

광주극장이 이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 장을 여는 한편, 다음달 제38주기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5·18을 소재로 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먼저 광주극장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영화 ‘그날, 바다’의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 영화 ‘그날, 바다’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지난 12일 개봉해 대한민국 정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단 기간 20만명 관객을 돌파해 화제가 됐다.

‘그날, 바다’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추적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로 접근하는 추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지난 4년간의 치밀한 취재 과정에 배우 정우성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는 ‘그날, 바다’의 메가폰을 잡은 김지영 감독과 제작사 ‘프로젝트부’의 김어준 총수가 참석하고 김광진 전 국회의원도 진행자로 참여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신작 ‘버닝’으로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작품 ‘박하사탕’이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영화 ‘박하사탕’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한국영화 개막작(제4회)을 시작으로 칸영화제 감독주간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로, 배우 설경구, 문소리의 첫 장편영화 주연작이다.

마흔 살 김영호의 20년 세월을 7개의 중요한 시간과 공간으로 거슬러가는 ‘박하사탕’은 김영호의 20년 삶을 관통하는 1980년 5월 광주의 트라우마를 통해 역사의 상처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밀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리마스터링 버전의 ‘박하사탕’은 26일부터 광주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광주극장은 매일 1회 광주·전남지역 문화계 인사를 선정하고, 초청 인사가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들 들어보는 ‘2018 시네마 가이드 맵’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의 첫 포문은 다음달 2일 오후 7시 나희덕(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이 열며, 나 시인은 짐 자무쉬 감독의 ‘패터슨’을 추천했다. 영화는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잔잔한 일상을 통해 특별한 울림을 전한다. ‘패터슨’ 상영 후 나희덕 시인과 함께하는 토크가 이어진다.

아울러, 26일 홍상수 감독의 ‘클레어의 카메라’,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당신의 부탁’도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행사 일정, 상영 시간표 등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cinemawangju>) 참조. (문의 062-224-5858)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 ‘황금빛 라이프 스타트업’ 프로그램 시작

광주女協 ‘노년을 위한 법 생활’ 첫선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란)가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 ‘황금빛 라이프 스타트업’을 선보이며 실버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도울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광주여협의 ‘황금빛 라이프 스타트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마음 코칭, 교양, 건강, 레크리에이션 등 실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삶의 활력을 선사하게 된다.

25일 오전 10시 광주여협 회관 4층 대강당에서 ‘노년을 위한 법 생활’으로 프로그램의 첫 시작을 열었다.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신청자 모두가 수강할 수 있다. <사진>

한편, 광주여협은 지난해 요리강좌 ‘요리하는



청춘2’를 운영하며 60-70대 남성들의 가사수행 능력과 식생활영양교육을 제공하고 실버세대의 건강한 생활을 도왔다.

이밖에 광주여협은 손자녀돌보미, 남편가사 육아참여교실, 광주·대구여성단체 달빛동맹교류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해 행복한 광주에 기여하고 있다. (문의 062-363-9401)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 7월 강릉서 ‘한국의 수중보물’ 특별전 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강릉오죽헌·강릉시립박물관과 전시 협약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가 최근 강릉오죽헌과 강릉시립박물관(관장 원제훈)에서 ‘한국의 수중보물(가제)’ 특별전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성과를 공개하고 조사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강릉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의 박물관과 공동으로 수중문화재 전국 순회전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강릉오죽헌과 강릉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의 수중보물’ 특별전에서는 신안보물선 등 14척의 난파선에서 발굴된

대표 유물 1천여점이 출품돼 강원도민과 강릉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전시는 난파선에서 찾은 도자기, 난파선의 실체를 밝혀 준 목간, 태안선과 운명을 함께 한 뱃사람의 일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지난 40여년간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과 고려청자가 한가득 실렸던 태안선, 고려 시대 무인 집권기 최고 권력자인 김준에게로 향했던 마도3호선, 조선 시대 조운선인 마도4호선 등 서·남해 지역에서 발굴한 14척의 난파선과 10만여점의 해양문화재를 연구·전시하고 있다. /목표=정해선 기자

## 양인모, ‘파가니니 카프리스’ 24개 전곡 연주

30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3·사진)가 오는 30일 광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전곡 연주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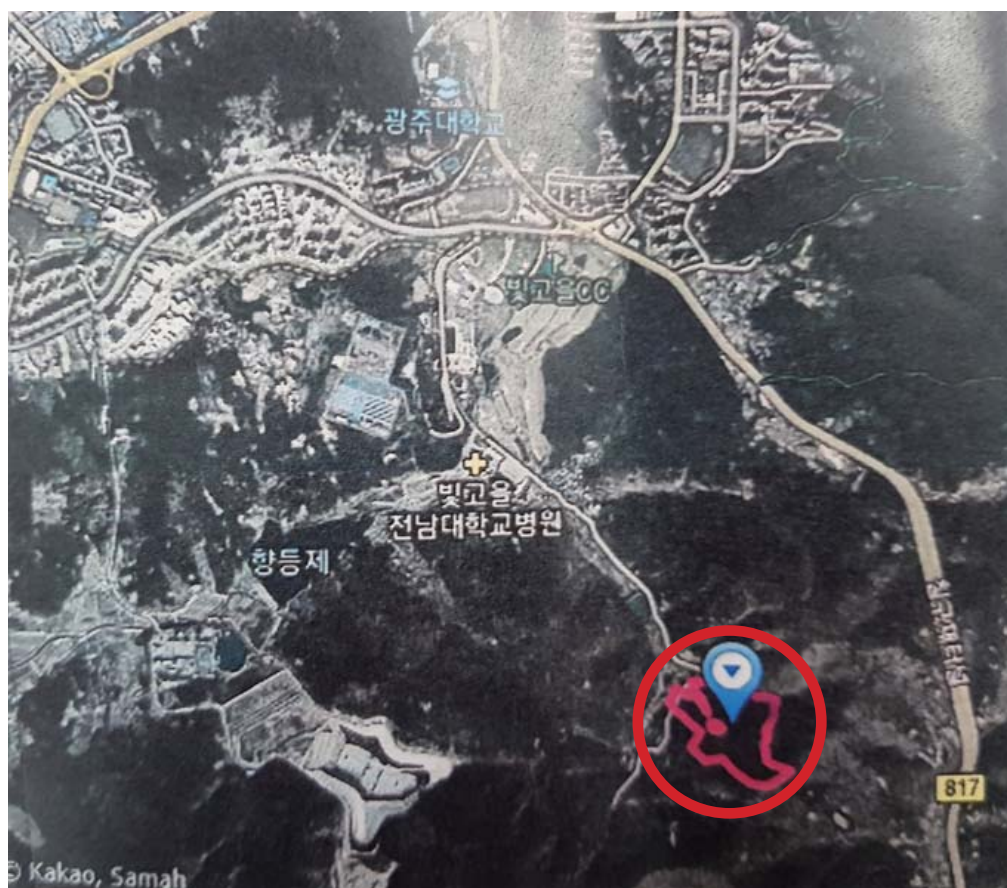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 연주자인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2014 빅토르 엘마레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1위 수상자로, 보스턴 글로브로부터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 “내면의 진솔함을 연주로 표출해내는 능력”이라 극찬 받은 바 있다.

양인모는 2015년 3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프렐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탄생한 1위 수상자이며, 한국인 최초 우승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작품 최고 연주상, 청중상에 이르는 특별상도 휩쓸며 바이올린 채널로부터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현악 거장”으로 꼽혔다.



양인모는 11세에 이원문화센터 고평우 콘서트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이후 15세에 나이로 KBS교향악단과의 무대를 통해 오케스트라 협연자로서 데뷔했다. 201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해 수학했다. 현재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암 프리드 사사로 학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동시에 최고연주자 과정에 서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발탁돼 수학하고 있다. 티켓은 일반 4만원, 학생 3만원. (공연 문의 062-360-8437)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20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8-1230